

이주여성의 한국어 듣기 평가에 대한 일고찰

-이주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한국어 듣기 평가 패러다임

박미엽(전북대)

<목 차>

1. 들어가기	평가의 예
2. 평가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4.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듣기 평가 패러다임
3.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재 듣기	5. 나오기

1. 들어가기

외국인 유학생,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 등의 한국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의 습득연구방법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한국어교육 방법론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발전되어 왔다. 이제는 평가를 통한 학습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다. 한국어 평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어를 제 2의 모국어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평가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하다.

평가란 주어진 영역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 수행, 등을 측정하여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 평가의 기능에는 교수적 기능, 관리적 기능, 동기적 기능, 진단적 기능, 교과과정적

기능이 있다¹⁾. 간단히 말하면 학습결과를 진단해서 교수자가 교수목표의 결정, 교육과정, 교수법 등을 개선하거나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켜 한국어 교육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주여성 등의 한국어 평가는 현재 한국어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능력 시험(TOPIK)이 가장 대표적이다.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여성들이 동일한 여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에게는 이 평가문제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²⁾. 평가의 기능들이 이주여성들의 한국어능력 향상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사실 유학생과의 분리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주여성과 유학생들의 교과과정 및 교육여건, 학습량 등 많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급에서는 한국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한국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중급이나 고급의 과정에서는 어휘, 문법 등을 비롯하여 읽기, 쓰기 즉 이해교육과 표현교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다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 두 번의 집체·집중교육을 받고 있는

-
- 1) 평가의 기능에는 교수적기능, 관리적기능, 동기적기능, 진단적기능, 교과과정적 기능이 있다. 교수적기능은 평가가 교수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데, 학생들은 평가를 위하여 공부하게 되고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을 깨닫게 되며 학습목표와 강조점을 숙지하게 되어 실력이 향상된다. 관리적기능은 교사와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수와 학습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말한다. 동기적기능은 동기유발적인 작용을 하는데, 평가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은 성취감을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된다. 진단적기능은 개별적 학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여 특정의 교수·학습 문제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과과정적 기능은 전체적인 교과과정 구성에 총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허용 외 2005 : 430-1).
 - 2) 필자는 2010년 세계 한국어교육자 대회에 참가하여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의 교과과정, 학습량, 학습여건 등이 유학생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주여성에게겐 평가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유학생과 이주여성의 평가는 다를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들의 최초의 한국어 평가는 등급을 나누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평가 문제지로 실시한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초급학습자가 중급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시험이 실시되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등급이 결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듣기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어능력 평가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³⁾. 또한 센터 안에서의 등급을 나누기 위한 평가에서조차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 처한 이주여성이 TOPIK시험을 보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상당한 정도의 학습량이 수반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실려 있는 듣기 평가의 고찰을 통해, 교재와 듣기 평가가 잘 연계되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보고 이주여성의 한국어 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새로운 듣기 평가 패러다임의 설정으로 한국어교육을 하는 교사의 학습계획과 방안에 보탬이 될 것이고, 한국어평가(TOPIK) 시험을 보고자 하는 이주여성들에게도 학습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둔다.

2. 평가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2.1. 평가의 개념

평가는 크게 측정(Measurement), 평가(Evaluation), 총평(Assessment)의 용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라는 대표용어로 사용해

3) 2015년부터 TOPIK에 듣기 시험도 추가된다고 하는데, 듣기 평가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주여성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기도 했으나,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이 용어들의 차이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측정(Measurement)

어떤 현상이든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이 놓여 있다. 타당성보다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므로 측정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측정결과는 선발, 분류 등에 이용한다.

(2) 평가(Evaluation)

학습자에게 일어난 다양한 변화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처음검사와 나중검사가 있으며 타당성을 중시한다. 학습자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교수방법, 수업과정, 심지어는 행정체제 평가에도 그 결과를 활용한다.

(3) 총평(Assessment)

전인적 평가라고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많은 사람이 평가해서 어느 합치점에 도달하는 총평 과정이다. 객관화된 검사, 자기보고 방법, 관찰, 면접, 장면검사, 역할 연출, 자유연상법이 도입되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구인타당성 및 예언타당성을 중시한다.

위의 평가에 대한 간단한 용어설명에 따르면 측정, 평가, 총평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모든 의미가 합해져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능력을 단지 수치로 측정함으로써 한국어지식의 습득여부를 알기 위함의 평가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 세 용어의 관점들이 합해진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2.2. 평가의 요건

평가의 요건이란 좋은 평가 도구의 조건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실용도(경제성, 간편성 Feasibility)의 3가지 요건을 언급하기도 하고, 여기에 객관도(Objectivity)를 더하여 4가지 요건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ESL에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의 3가지 요건을 표준평가의 요건으로 하는데, 이들은 테스트가 측정하고자 한 것을 측정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측정하는데 일관성이 있는지, 테스트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는 아닌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도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객관도의 내용⁴⁾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타당도(Validity)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여기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목표지향타당도(criterion-referenced validity), 예언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있다. 예를들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는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해야하는데, 글쓰기로 평가하거나 시낭독으로 평가를 하여 발음이나 억양 등의 정확성을 평가하면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신뢰도(Reliability)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없이 측정하고 있느냐 혹은 평가의 결과가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느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재검사 신뢰도(retest reliability)와 동형검사 신뢰도(equivalent-form reliability)로 분류되거나 채점자 신뢰도와 평가 자체 신뢰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또 채점자간 신뢰도와

4) 박영순(2004: 266-272) 참조.

허용 외(2005: 435-38) 참조.

채점자 내 신뢰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가 문항의 수,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등이 있다. 신뢰도는 하나의 평가도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시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3) 실용도(Feasibility)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평가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 환경, 심리, 시간, 인력, 자원 등의 여러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시험의 준비, 실시시간, 채점의 용이성, 비용 등 평가가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잘 구비되었는가를 의미한다.

(4) 객관도(Objectivity)

한 가지 반응 결과에 대해 여러 사람의 채점 및 평가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는 평가자간 객관도와 한 평가자가 시간 간격이나 상황의 차이에 따라 같은 대상에 대해 동일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평가자내 객관도를 포함한다. 이것은 표준테스트들의 양적 자료가 오히려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인다는 것을 말한다.

위의 4가지 요소들은 평가론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평가 내용과 평가 방법이 동시에 논의되어야만 한다. 다시말해 평가하려는 대상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타당도), 평가의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는가(신뢰도, 객관도),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실용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좋은 평가가 된다는 말이다.

이외에도 수준별 평가에 따라 문법적 능력, 담화구성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의 범주를 평가할 수 있다. 문법적 범주는 한국어의 언어규칙, 어휘,

발음, 문법, 문장 구조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야 하고, 다양한 문맥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높임법 등 한국 사회 특유의 표현방식이라든가, 담화의 의미특성이 다르게 해석되는 화용적 쓰임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사회언어적 능력, 대화상황에서 얼마나 잘 듣고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담화구성 능력 등이 평가의 범주에 들어간다.

2.3.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때 전통적인 교육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왔다. 그 변화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표1)⁵⁾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
1. 언어중심	의사소통 중심
2. 교사 중심	학습자 중심
3. 단선적 방법(듣기면 듣기만 중심)	통합적 방법(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4. 결과 중심	과정중심
5. 하나의 답, 일방적 교정	열린, 다양한 해결책
6.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가르치기 위한 테스트

위의 전통적인 외국어 패러다임(특히 ESL에서)은 이전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동일했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한국어교육에서도 서서히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긴 하나 아직도 상당수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이 유지되고 있는 다문화센터 한국어교육장도 많다. 새로운 교육방법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5) Jack C. Richards & Willy A. Renandya (2002: 335) 참조.

위해서는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한국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수업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도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과 같은 방식의 교육 방법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현숙(2010)⁶⁾의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적 평가	현대적 평가
1. 측정개념, 점수만 준다-지식평가	추론개념, 과제해결의 수행과 과정 중심적 평가
2. 별도의 준비물 없음	녹음기 활용 등 성적의 개관적 산출
3. 아는 것만 성실성의껏	향후 교육개선에 중요한 역할-평가결과를 교수에 반영
4. 수업시간에 가르친 것을 그대로 평가	평가 항목의 상세화-타당도와 신뢰도 확보
	말하기 전략의 중요성 인식

위의 평가 패러다임변화를 살펴보면 외국어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몇몇 측면을 반영한 항목을 볼 수 있다. 특히 과정중심이나 말하기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의 변화를 위해서는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객관도가 구비된 좋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다시 교육내용이나 방법의 개선을 가져와 발전적 순환구도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 교육방법과 평가를 거쳐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호영향을 주면서 교육과 평가가 보편적인 순환구도를 보인다. 즉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는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들은 상호영향을 받으면서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6) 2010 세계 한국어교육자 대회 결과자료집 108면 참조.

(표3) 교육과 평가의 순환 패러다임



3.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재 듣기 평가의 예

3.1. 이주여성 한국어 교재의 듣기 평가)

이주여성들의 교과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된 교재로 14권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국립국어연구원출판)으로 구성되어있고 주로 왕초보, 초급, 중급의 과정에서 가르친다.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재에 들어있는 듣기 테스트의 사례를 통해 내용분석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른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재 2,3,4권에 있는 듣기 테스트 중 일관된 주제의 지문을 각 하나씩 선택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2권 14과 듣기 평가 지문과 질문

<지문> 약사: 어서 오세요.

수잔: 여기 치방진 가져 왔는데요.

약사: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약을 드릴게요.

약사: 수잔 씨, 여기 있습니다. 이 약을 3일 동안 드시는데요.

하루 세 번 식후에 드세요. 감기약이라서 졸릴 거예요.

7) 본고에서 ‘평가’라는 어휘는 크게는 크게는 ‘평가’의 의미와 작게는 ‘테스트’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에서의 ‘평가’는 교재의 내용을 잘 습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4가지 언어능력 테스트를 위한 문제들이 일정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 또한 일종의 평가 작업으로 받아들여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안에 물약도 있으니깐 같이 드세요.
 물약은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에 드세요.
 수잔: 네, 감사합니다.

<질문> 1. 여기는 어디입니까?

- ① 병원 ② 약국 ③ 식당 ④ 슈퍼마켓
2. 밥 먹기 전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네_____ 아니오_____
3. 하루에 두 번 물약을 먹습니다. 네_____ 아니오_____
4. 3일 동안 약을 먹어야 합니다. 네_____ 아니오_____
5. 감기약을 먹어서 잘 자지 못합니다. 네_____ 아니오_____

(2) 3권 15과 듣기 평가 지문과 질문

<지문> 약사: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잔: 우리 남편이 어젯밤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약사: 남편 분이 어제 무슨 음식을 드셨어요?

수잔: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회를 먹었어요.

약사: 상한 음식을 먹은 것 같네요. 열도 있어요?

수잔: 아니요, 열은 없어요.

약사: 그럼 이틀 동안 먹을 약을 드릴 테니까 지금 드시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못 드시게 하세요.

수잔: 이 약은 어떻게 먹으면 돼요?

약사: 하루에 세 번, 식사 후에 한 알씩 드시게 하세요.

수잔: 병원에선 안 가 봐도 될까요?

약사: 약을 먹은 후에도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 보도록 하세요.

<질문> 1. 수잔과 약사의 대화예요. 잘 듣고 맞는 내용에 표시하세요.

- 1) 수잔은 배가 아파서 약국에 왔습니다. 네_____ 아니오_____
- 2) 수잔의 남편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픕니다. 네_____ 아니오_____
- 3) 수잔의 남편은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 안됩니다. 네_____ 아니오_____
2. 잘 듣고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3) 4권-14과 듣기 평가 지문과 질문

먹는 약	
이름: (김기호)	나이: (37세)
1일 ()회	()일분
()	()후 복용
행복약국	

<지문> 의사: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잔: 아이가 어제 수영장에 다녀 온 후부터 눈이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충혈되었어요.

눈이 따끔따끔거린다고도 해서 걱정이예요.

의사: 어디 한번 봅시다. 유행성 결막염이군요. 수영장에서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수잔: 그래요? 어떻게 하지요?

의사: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약과
안연고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안약은 수시로 넣어 주시고,
안연고는 잠자기 직전에 눈에 발라 주시면 됩니다.

수잔: 알겠습니다. 약도 먹어야 할까요?

의사: 이 정도라면 약은 이틀 분만 먹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결막염은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니까 손을 자주 씻기고,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수건 같은 것은 다른 가족
들과 따로 쓰도록 하시고요.

수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수잔과 의사 선생님의 대화예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수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안과 ② 치과 ③ 이비인후과

2) 의사가 조언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약은 이틀 정도 먹이세요.
② 하루에도 여러 번 안약을 넣어 주세요.
③ 안연고를 일어난 직후에 눈에 발라 주세요.

3) 아이는 어제 수영장에 다녀온 후부터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다.

네 ___아니오___

4) 많이 아픈 것이 아니니까 약은 먹이지 않아도 된다.
네__아니오__

위의 듣기 지문들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병에 관련된 의사나 약사와의 대화를 선택하였고, 또한 등급별 어휘나 문법을 비롯한 문장의 길이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련의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손연자(1999: 519)에서 단계별 듣기 내용과 지도방법에 따르면 초급에서는 음운의 식별(자모듣기, 길이-억양의 식별, 어휘-문장안에서의 음운식별), 초급/중급에서는 어휘듣기(단일어듣기, 숫자듣기, 문화적 어휘듣기), 초급/중급/고급에서는 문장듣기(단문과 복문의 이해, 부정문과 긍정문의 이해, 피동문과 사동문의 이해), 중급/고급에서는 이야기 이해의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방법으로 진위형, 맞는 답 고르기(초급), 받아쓰기, 단어 게임, 듣고 완성하기(초/중급), 그림 또는 지도 찾기, 동의문 찾기, 듣고 행동하기, 그림그리기(초/중/고급), 관련이 없는 내용찾기, 듣고 작문하기, 듣고 답 쓰기, 드라마-뉴스 듣기(중/고급)을 언급하고 있다.

요즘은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듣기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내용의 이해를 위한 평가 유형 또한 다양해지는 한국어 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이주여성들의 교재에 나타난 듣기 내용의 평가문제는 일정한 유형을 보일 뿐이다. 객관식 듣기 평가나 ‘예/아니오’의 평가는 단순한 내용의 이해평가 이기에 등급이 올라갈수록 문법능력이나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평가범주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TOPIK의 초급 문제만 하더라도, 발음과 어휘 등의 문법능력 평가, 대화 상황에 맞는 말 찾기 등의 사회언어학적 평가, 듣기에 따른 그림 찾기 등 전략적 능력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주여성들 교재의 간단한 듣기 평가는 여러 능력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의 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3.2 해당 교재의 어휘와 문법 그리고 듣기 평가 지문에의 반영 양상

여기에서는 권별 내용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제목과 기능, 문법, 어휘를 도표로 만들어 보고, 각 지문에 이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한다.

(표4) 교재의 내용과 듣기 평가 지문에의 반영 양상

교재	제 목	기능	문 법	어휘	듣기평가 반영
2-14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 설명하기 복용법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ㅅ'불규칙 -지 못하다 -(으)ㄴ/는 걸 보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관련 어휘 증상관련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O 문법: X 어휘: X
3-15	찬물에 다리를 담그게 하세요 (유아응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걱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 하다 -(으)ㄴ 뻔하다 -(으)ㄴ 수 있을 지 걱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응급상황 관련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X 문법: O 어휘: X
4-14	괜찮아질 때까지 음식은 먹이지 마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언구하기 조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어서 큰일이다 사동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 병원관련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O 문법: O 어휘: X

3.1의 듣기평가 지문과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의 기능, 문법, 어휘 측면을 비교한 결과 교재에 있는 듣기평가에는 모든 요소가 골고루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더불어 문법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교재에 나타난 문법표현이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중의 하나 정도만 듣기평가 지문에 반영되어 있다. 어휘는 가장 문제점을 보이는 항목이다. 교재에 나타난 새로운 어휘들이 듣기평가의 지문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2-14교재에는 증상관련동사 어휘로 '머리가 아프다, 다리를 다치다, 소화가 안되다, 설사를 해서 화장실에 자주 가다, 열이 나다, 감기에 걸리다, 어지럽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다' 가 나오는데, 듣기평가 지문은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주면서 처방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문법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문이다.

3-15교재에서의 어휘는 유아응급상황관련 어휘들과 약종류의 이름이 나온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다, 이물질을 삼키다, 머리를 다치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다, 코피가 나다, 벌레에 물리다, 팔이 부러지다, 발목을 빼다, 손가락을 베이다'와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이 새로운 어휘로 나와 있다. 그런데 3-15의 듣기평가 지문은 남편의 배앓이로 약국에서 약사와 대화하는 내용이다. 기능은 '걱정하기'이겠지만, 문법은 '-게 하다'의 표현만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재에서 제시한 유아응급상황 관련 어휘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4-15 교재에서의 어휘는 증상이나 병원관련어휘로 식중독(설사를 하다, 토하다, 배가 아프다/복통, 식은땀을 흘리다, 몸이 마비되다), 배탈(설사를 하다, 메스껍다, 소화가 안되다, 기운이 없다, 머리가 아프다/두통), 몸살(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오한이 나다, 팔다리가 쭈시다)와 진료과 유형 어휘인 이비인후과,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성형외과, 소아과, 외과가 나온다. 교재는 아이의 식중독에 관련된 내용이고, 듣기평가의 지문은 안과에서 아이의 결막염에 관련된 진료내용이다. 기능은 조언하기가 잘 반영되어 있지만, 문법은 사동표현만이 반영되어 있다. 어휘 역시 4-15의 교재에 나타난 어휘와는 전혀 다른 안과 관련 어휘인 유행성결막염, 충혈, 안연고 등 새로운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교재의 내용이나 문법, 어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듣기 평가 지문은

좋은 평가 구비 요건 중 타당도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듣기 평가의 난이도는 지문의 문장구조, 어휘, 문장의 길이 등에 의해 달라지는데, 2-14, 3-15, 4-14는 단계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나, 의미면에서의 언어적 해석, 화용론적 해석, 관용적 해석, 은유적 해석이 필요한 지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청자의 상상력이나 추리력이 필요한 것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단순한 이해력으로 해결가능한 지문과 질문들이었다.

이주여성 교재 듣기 평가의 지문에 대한 질문은 분석이나 종합력을 필요로 한다기보다 ‘예/아니오’의 단답형과 객관식이라 할지라도 3지 선다형이고, 주관식이라 해도 단순한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유형들이었다. 말하자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등급이라도 거의 동일한 질문유형들(예/아니오, 선다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듣기 평가의 다양한 질문 형식 연구 필요성 말하자면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4.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듣기 평가 패러다임

4.1.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재 듣기 평가의 문제점

듣기 평가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세부 항목으로 제시한 것⁸⁾이 있는데, 개별음운의 식별, 발음규칙의 이해, 어휘의 의미나 쓰임의 이해, 관용표현의 의미이해, 어휘의미의 유추, 문장 종결형의 구분과 기능의 이해, 높임법 체계의 이해, 문맥의미의 이해, 인용문의 이해, 생략이나 도치 문장의 이해, 접속어 쓰임의 이해, 휴지나 억양 등의 어조 이해, 담화상황, 주제, 기능의 이해 등이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평가함으로써 학습자의 문법

8) 한재영(2005: 606-7), 한국어교수법, 태학사.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구성능력, 전략적 능력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 자료나 평가방안의 새로운 모색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이주여성들의 교재에 나타난 듣기 평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해당 교재에 나타난 문법이나 어휘가 듣기 평가 지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문제 유형이 단조롭다는 점

셋째,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위의 문제점을 통해서 평가 항목 출제 과정에 대해 좀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평가항목은 정했는지, 학습목표에 따라 평가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이후에 평가문항을 작성하고 검토했는지 등의 평가 출제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의 문제는 상당히 다양한 문제 유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말한다. 단순한 듣기의 '예/아니오'의 단답형에서 듣고 이해하고 쓰는 것까지의 종합적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의 문제는 앞서 3.1의 듣기 평가 지문들에서 보아왔듯이 어휘가 조금씩 어려워지거나 문장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들 또한 단순한 이해만으로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다. 그런데 듣기 평가에서는 의미론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질문 항목들이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다 고려되어야 한다. 즉 듣기 평가가 크게 어휘력, 문장 해석력, 담화해석력 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현 교재의 듣기 평가 지문을 통해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 교재의 듣기 평가는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좋은 평가 구비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평가 자료가 매우 한

정적이고 평가방안이 객관식이거나 주관식이라 하더라도 단답형이고 초급에서나 평가할 수 있는 유형들이 중급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서 새로운 방법의 유입이 시급하다.

4.2. 이주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한국어 듣기 평가 패러다임

지현숙(2010)의 한국어듣기 능력평가의 방법에 따르면 합당한 듣기 지문이 구비가 된 이후에 문항 자체에 오류가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듣기 능력 평가를 하면서 쓰기 능력 평가를 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려해야 하며, 선다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대화참여지수, 성별, 나이, 순서, 과제의 수, 입력방법(문제를 들려주느냐, 보여주느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현숙의 주장도 역시 크게 보면 출제 과정, 문제 유형, 난이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보이나, 듣기 평가는 선다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단선적인 주장이다. 왜냐하면 사실 언어능력의 습득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듣기 평가의 일환으로 초급에서는 듣기만을 위한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듣기라 해서 단순히 어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중급이상의 듣기 평가 문항들의 문장들은 또 다른 의미들의 파생으로 인해 논리적인 추론 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다형의 듣기 평가는 다양한 문제 유형의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이주여성들의 듣기 평가에 선다형의 문제만을 고집한다면, TOPIK 시험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듣기 평가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어 듣고 맞는 것 찾기, 문장듣고 문장의 일부 채우기, 문장듣고 문장의 일부 채우기, 문장듣고 적절한 반응찾기, 문장듣고 유사한 의미 찾기, 문장이나 대화듣고 질문에 답하기, 그림보고 알맞은 설명이나 대화찾기,
--

담화나 문장 듣고 맞는 그림찾기, 담화듣고 담화요소 파악하기, 담화듣고 그림순서 맞추기, 담화듣고 그림, 지도, 도표 완성하기, 받아쓰기, 정보찾기, 대화듣고 이어지는 문장찾기, 담화의 전체내용 이해하기, 담화의 세부내용 파악하기, 담화듣고 중점요지 파악하기, 담화 내용요약하기, 담화의 제목붙이기, 담화 듣고 추론하기, 화자의 태도, 어조파악하기 등

위 다양한 유형들은 음운듣기, 어휘듣기, 문법적 특질듣기, 정보듣기, 이어지는 말 찾기, 핵심 내용 찾기, 내용 이해하기, 요지파악하기, 요약하기, 제목찾기, 추론적 듣기, 담화유형 구분하기로 간략하게 분류할 수 있다. 즉 등급에 따라 새로운 단어 듣기(pre-listening)유형에서부터 문장듣기를 통한 일반적인 문제 유형(extensive-listening)과 보다 상세한 이해문제 유형(Intensive-listening)까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새로운 듣기 평가 패러다임을 설정해 볼 수 있다.

(표5) 새로운 듣기 평가의 패러다임

기존의 듣기평가 패러다임	새로운 듣기 평가 패러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위한 평가 ● 교재 내용과 다른 듣기 평가 ● 예/아니오 단답형 듣기 평가 ● 단선적 문제 유형-듣기 향상 위주 ● 변별력이 약한 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 향상과 교수를 위한 평가 ● 교재내용(어휘, 문법)과 일치되는 듣기평가 ● 다양한 문제 유형의 듣기 평가 ● 통합적 문제 유형-듣기 능력을 비롯한 나머지 언어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향상(이해와 표현의 능력 동시 향상) ● 초급에서 고급까지 변별되는 난이도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언어지식 습득만을 위한 교사와의

교육보다는 가정과 친구들 등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상황교육이 특히 우선시된다. 그러기에 평가지문들이 대화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제는 그 지문형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교사들이 학습자의 배경과 한국어의 사용능력 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및 객관도를 갖추려면 초급에서부터 고급까지의 오로지한 대화지문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지문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다. 따라서 새로운 듣기 평가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평가 구비 요건을 골고루 만족 시키면서 학습자의 듣기능력을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듣기 능력 향상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Ana(2002: 339)가 주장했듯이 전통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대안적 평가(alternative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즉 학습자가 어떤 특정 영역이라 할지라도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일들에 접근하여 진행하고 완성하는 방법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 보여주는 것이 대안평가인데, 이런 대안평가야말로 이주 여성들의 교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이다.

초급과정에서는 듣기를 위한 듣기 평가가 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급과정에서조차도 여러 능력이 복합적으로 측정되는 통합평가가 이루어져서 지나치게 음운 식별력이나 어휘 지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들은 내용을 다시 회상하여 알맞은 낱말을 주어진 글에 넣는 방법이나 구두 언어로 들은 정보를 비언어적 형태의 자료로 변형시켜보거나 즉 듣고 그림 완성하기, 듣고 서류 완성하기 등 실생활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평가를 생각해볼직하다.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1차 대상은 학습자 친구들이나 가족이다. 대안적 평가는 바로 이런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교재에는 보다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져야 하며, 수준별 평가 자료와 방안의 다양성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TOPIK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나오기

본고는 이주여성들이 배우는 교재를 통해 한국어 듣기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 보았다.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교육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와 상호 영향을 주면서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모국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들에게 알맞은 교육방법이 다시 수립되고 그 다음의 평가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능력이 보다 빨리 향상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재의 듣기 평가를 예로 고찰한 결과 교재 속에 나오는 듣기평가에는 출제과정, 문제유형, 난이도 등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해당 교재 내용의 어휘나 문법이 해당 듣기 평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상정해 보았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과 학습을 위한 교수내용이나 교수법 등의 변화가 있는 평가 패러다임이다. 사실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은 크게는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이나 교수법 등의 변화이지만 작게는 TOPIK 시험의 좋은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본고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내의 듣기 평가를 예로 새로운 듣기 평가 패러다임을 구축해 봤지만, 실제 이주여성들의 등급 변별을 위한 배치고사와 TOPIK까지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새로운 한국어 교육의 패러다임과 한국어 평가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이는 후속과제로 남긴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듣기 평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수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을 가르치기 위한 공인 교재의 내용 중 듣기 문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보았다.

해당 교재에 있는 어휘나 문법들이 해당 과의 듣기 문제에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거나 문제의 유형이 단조롭거나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문제 유형이 거의 변함이 없어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되고 깊이있는 문제 유형들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단선적으로 평가만을 위한 듣기 문제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듣기 문제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구 패러다임에서 신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안적 평가는 특히 이주여성들의 언어능력과 수행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안적 평가의 가장 큰 특질은 실제로 언어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테면 친구나 가족 등과의 대화에서 언어수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통해서 교사는 교수법을 새로이 모색할 수 있고, 이주여성들은 언어 능력과 수행의 향상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주제어: 듣기평가, 패러다임, 듣기숙련, 텍스트, 질문항목, 대안평가

<참고문헌>

- 강승혜 외(2006), 『한국어 평가론』, 태학사.
- 강현화, 민재훈(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영 한국어』, 다락원.
- 남기심, 손연자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2010), 2010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결과 자료집.
- 민현식 외(2005),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민신(2008), 「한국어 듣기 평가 텍스트의 진정성 연구 -대화형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1,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 박영순(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개고판 1쇄. 월인.
- 이완기(2003), 『영어평가방법론』, 문진미디어.
- 이해영 외(2006), 『한국어 능력시험 문항유형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 이흥수 외 공역(2003), 『외국어학습·교수의 원리』, 제4판.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Ana Huerta-Macias(2002), Alternative Assessment: Responses to Commonly Asked Questions. In Jack C. Richards &Willy A.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pp. 338-343).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rea H. Penafiora(2002), Nontraditional Forms of Assessment and Response to Student Writing: A Step Toward Learner Autonomy. *상기동일책* (pp. 344-353)

- David Nunan(2002), Listening in Language Learning. 상기동일책 (pp. 238-241)
- John Field(2002), The Changing Face of Listening. 상기동일책 (pp. 242-247)
- John Norris & Lourdes Ortega(2003), Defining and Measuring SLA, In Catherline J. Doughty and Michael H. Long (Eds.), *Th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717-760). Blackwell Publishing.
- Kevin R. Gregg(2003), SLA Theory : Constrction and Assessment. 상기동일책. (pp. 831-865).

참고자료

국립국어연구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4.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Listening Test of Migrant Woman

Park, Miyub

This paper is on the assessment(or evaluation) of Listening. This paper built a new paradigm of Listening assessment to develop the Listening Skill and Linguistic competence of the immigrated women in Korea. Using the accepted texts, this paper compared with text's contents and each listening question. According this compare, we know that the listening questions didn't reflect especially words and grammars in the texts. Also, the kind of listening question item is so simple like yes/no question in the texts. And the feature of listening question was linear like just evaluation for evaluation of the listening. It has to extend the range of linguistic competence from listening to another areas like writing, reading etc. These are kinds of extensive and intensive listening.

Consequently, changing the new paradigm of listening assessment from the old paradigm, especially alternative assessment for the immigrated women is really crucial to develop listening skills and listening competence. Because it creates new instruction methods and encourages learners' motivation of language acquisition.

【Key words】 : Assessment or evaluation, paradigm, listening skill, texts, question item, alternative assessment.

박미엽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yubpark@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